

종교교육학연구 제16권. pp.51~7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한국인의 정체성과 개신교의 종교교육

申 光 澈

(한신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를 한국개신교의 자리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종교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한국 종교사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조화의 정신이었다. 조화의 정신은 한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어왔다.

다음으로 근대 서양 종교(그리스도교)의 수용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주목하였다. 한국 종교사에 새롭게 종교간 경쟁과 갈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개신교 교육의 한 가지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종교들의 조화를 지향하는 대화 교육이 그것이다.

한국 개신교사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문제는 개신교의 문명사적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날 개신교는 규모에 걸맞은 문명적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들을 설정할 수 있었다. 지역 문화 선교 교육과 평화 교육이 그것이다.

핵심 주제어: 정체성, 조화의 정신, 반성적 성찰, 지역문화 선교 교육, 평화 교육.

I. 서 론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는 물음을 묻는 주체와 자리에 따라 그 함의가 다양하겠지만,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목적은 대체로 비슷할 것이다.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현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실시하기 위함인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를 교육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교육'을 논의하게 된 것도 한국인의 현재적 정

황을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함일 것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종교교육의 과제'를 개신교의 자리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국개신교는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가?"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개신교는 한국인의 정체성 혁신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한편, 그러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한국종교사의 맥락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한국종교사의 두 개의 커다란 계기, 즉 동양고전종교의 수용과 서양종교(그리스도교)의 유입이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내지는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종교의 구조를 관통하는 조화의 정신을 중심 논제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한국개신교사의 맥락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설득력 내지는 사명을 중심 논제로 설정하게 될 것이며, 한 세기 전(19세기말 20세기초)과 한 세기 후(20세기말 21세기초)의 개신교의 문명사적 위상을 비교·고찰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개신교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제시된 논제들을 통해 개신교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II. 한국종교사의 맥락에서 본 정체성 문제

한국종교사를 개관할 때, 주목해야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한국종교의 역사가 다양한 종교전통의 교섭사였다는 점이다. 한국종교사는 고유종교와 외래종교의 끊임없는 접촉사였던 것이다. 종교문화의 고유소(固有素)와 외래소(外來素)의 접변은 특정 사회 종교지형(宗教地形)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 종교사에 나타난 두 가지 계기에 주목하게 된다.¹⁾ 이 두 가지 계기에는 종교의 고유소와 외래소 사이의 일대 접변과 그로 인한 변화양상이 함축되어 있다.

첫 번째의 계기는 우리 사회가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고전종교(東洋古典宗教)의 수용이었다. 우리 민족은 부족연합체 단계로부터 고대국가 체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동양고전종교의 고

1) 윤이훈,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장병길교수 은퇴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한국종교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85, 42-43쪽 및 47-48쪽.

전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불교의 업설(業說)과 불국토(佛國土) 관념, 유교의 충효사상 등은 고대국가 체제 정비에 요구되는 이념적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혁신의 계기를 제시하였다. 동양고전종교의 수용은 고대 한국 종교의 주요 동기를 이루었던 기복사상(祈福思想)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주술적 현세주의(呪術的 現世主義) 내지는 숙명론(宿命論)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었다. 동양고전종교의 수용은 또한 고전적 사회질서에서의 방향 제시의 계기가 되었다. 고전적 사회질서의 구형은 동양고전종교의 구도형 신념체계의 세례에 입각한 것이었다.²⁾

동양고전종교의 수용은 혈연(血緣)과 지연(地緣)을 배경으로 한 기복양재(祈福禳災) 사상을 중심적인 모티브로 삼은 부족국가 단계의 세계관에 일대 전환을 불러왔다.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혁신은 현실조건의 충족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온 삶의 지향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기반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한 반성적 성찰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커다란 세계 내지는 진리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세(大世)와 담수(淡水), 그리고 대세와 구칠(仇柒)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관심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³⁾ 이들의 대화에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보다 큰 세상, 나아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라인들의 꿈이 담겨져 있다. 거기에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구도행(求道行)의 동기가 나타나 있다.

우리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신라인들의 세계관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인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회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대세는 어릴 적부터 인간 세계를 초월하려는 이상, 즉 구도에의 꿈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한 현상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주술적 현세주의와 숙명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구도적(求道的)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기복에서 구도에로의 이행'으로 요약되는 종교사적 맥락은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윤이훈은 종교적 동기의 입각해서 종교적 신념체계를 기복형(祈福型), 구도형(求道型), 개벽형(開闢型)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기복형의 동기의 주안점이 생존과 현실조건 충족에 있다면, 구도형의 동기는 자아의 완성과 진리 추구에, 그리고 개벽형의 동기는 황금시대의 대망에 주안점이 놓여져 있다(위의 글, 23쪽 및 39쪽).

3)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平王條.

동양고전종교 전통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세 종교 전통의 정립(鼎立) 사상이다. 고대국가 형성 및 체제 정비기 동안에 동양고전종교 전통들 가운데 어느 한 전통도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동양고전종교 전통들은 이 시기부터 이른바 삼교정족적(三敎鼎足的) 세계관을 형성하여 한국종교의 구조를 이루어 왔다. 우리 민족은 삼교정족적 세계관을 통해서 유교·불교·도교 등 동양고전종교의 사상적 장점을 적극적이면서도 고르게 섭취해 왔다. 이러한 삼교정족적 세계관은 기왕에 한국종교의 구조를 이루어 온 원융적(圓融的) 세계관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한국인의 삶의 질의 열개를 형성하여 왔다. 유교·불교·도교 등 동양고전종교 전통들은 기왕의 신교(神敎)⁴⁾ 및 무속적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어 온 하늘·님신앙⁵⁾의 흐름 위에 고전적 세계관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내지는 혁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연개소문의 상소를 통해서 고대 한국의 삼교정족적 세계관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연개소문은 동양고전종교의 3대 구성요소인 유교·불교·도교의 균형적인 수용을 강조하였으며, 세 종교전통의 정립 구도를 갖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도교의 적극적인 수용을 보장 왕에게 건의하였다.⁵⁾ 우리는 연개소문의 상소문을 통해, 고구려의 국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삼교정족적 세계관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개소문은 상소문에서 유교·불교·도교 등 동양고전종교 전통들의 관계구조를 술의 세 발에 비유하면서, 셋이 어그러짐 없이 鼎立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삼교정족적 세계관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삼교정족적 세계관의 실체는 《삼국사기》에 인용된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의 구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는 당대의 종교지형 내지는 사상지형에 대한 지성적 성찰이 반영된 자료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자료이다.⁶⁾ 최치원은 우리 고유의 영성을 풍류(風流)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동

4) 이능화(李能和)는 한국의 고유종교를 '신교(神敎)'로 규정하면서, 그것의 원류를 '단군신교(檀君神敎)'에서 찾은 바 있다. 신광철, 〈이능화의 韓國神敎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회, 《종교학연구》 11집, 1992, 123-138쪽.

5)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臧王條·上. 같은 내용의 기록이 《三國史記》 권49, 列傳9, 蓋蘇文條에도 있다.

6) “나라에 심오하고 미묘한 도가 있는데 風流라 한다. 敎를 設施한 근원은 《仙史》에 자세히 거니와, 실로 三敎를 포함한 것으로써 여러 백성을 접촉하여 敎화시켰다. 또한 들어가면 집 안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함은 魯나라 司寇의 뜻이요, 자연 그대로 행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周나라 柱史가 주장한 요지며, 모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만 받

양 고전종교의 세 전통을 이미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최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적 전통을 풍류도(風流道)로 규정하는 한편, 풍류도가 동양 고전종교의 전통과 합류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 것이다.

삼교정족적 세계관은 우리 민족이 동양고전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의 틀을 이루었으며, 한국종교의 중요한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는 원융(圓融)과 조화(調和) 정신의 구조적 배경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삼교정족적 세계관은 우리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의 이념적 동력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종교사의 흐름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는 서양종교(그리스도교)의 유입 및 근대화의 충격이었다. 첫 번째의 계기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적극적인 수용'으로 가닥 잡혔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의 계기는 수용의 준비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진 성격이 강했다. 우리가 두 번째의 계기를 수용'이 아닌 유입'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서양종교 내지는 서양문명의 유입은 당대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른바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으로 상징되는 제2의 접변의 성격은 서로 다른 두 에피스테메 사이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종교(고유종교+동양고전종교)와 외래종교(사양종교=천주교+개신교=그리스도교), 또는 전통(문명)과 서구근대(문명)의 접변은 쌍방간의 이해를 통한 만남보다는 일방적인 대응과 충돌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인류 역사가 근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정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 때문에 「만 여명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비극」의 이면에는 문명과 문명의 일대 충돌이라고 하는 역사적 정황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유학과 서학, 혹은 유교와 서교의 일대 충돌로 요약되는 상이한 에피스테메의 접변은 우리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⁷⁾ 여기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근대적 생활 방식과 세계관의 형성, 종교적 관계구조 인식론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서양문명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른바 '근대적' 생활 방식을 접하게 되었다. 과학의 성과에 입각한 간편함과 편리함, 효율성으로 압축되는 '서구적'

들어 행함은 인도 태자의 교화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條.)

7) 서학 혹은 천주교와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현숙 교수의 발표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종교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들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생활 방식의 이식 또는 수용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서구 과학 문명은 효율적인 합리성'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그러한 효율적 합리성의 작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개인의 양심'의 발현과 개개 인권에 대한 자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혁신을 자극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흐름을 빚어내는 효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일련의 천주교 교안(敎案)에 나타난 양대인자세(洋大人藉勢)⁸⁾ 현상이나, 초기 개신교인들의 입교 동기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바 있는 모식신자(謀食信者, Rice Christian)⁹⁾ 현상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서구-근대 문명 수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서구-근대 문명 수용이 힘과 힘의 충돌이라는 문명 대결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과 근대의 문제를 강약(強弱)의 관점에서 인식하게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통을 지양(止揚)의 대상으로, 서구-근대를 지향(指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었다. 이와 같은 문명 수용의 정황은 근대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로, 서구-근대 문명 수용 과정에서 종교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서구 종교, 특히 개신교는 서구-근대 문명의 중요 전달자(carrier)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물질 문명의 뿌리로서의 정신 문명'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이는 개신교의 빠른 성장의 한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의 전통종교 영역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운동이나 민족종교 운동에서 개신교가 하나의 모델로 설정된 현상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양문명과의 만남은 종교적 관계구조 인식론에도 커다란 전환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교의 유입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양태의 종교적 관념을 제시하였다. 한국인들은 서양종교(그리스도교)와의 만남을 통해, 그 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절대자이고 창조자인 유일신과의 만남이었다. 절대적 유일신을 전제하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테오스'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유교와 서교 사이의 갈등과 충돌의 이면에는 이러한 절대적 유일신의 도전이 개재되어 있었다. 1만여명에 이르는 천주교인

8) 신광철, 《천주교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94-97쪽. '양대인자세'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또한 참조할 것. 윤경로, 〈신구교 관계의 역사적 고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1984년 2월호.

9)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174-175쪽.

들의 순교' 현상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절대적 유일신의 체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가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천주교인들의 순교' 현상은 한국사회의 종교적 관계구조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게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종교사의 도도한 흐름을 구성해 온 삼교정족적 세계관과 거기에 반영된 원융과 조화 정신에 일대 변화가 야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서구-그리스도교의 유입과 함께, 종교적 관계구조가 조화에서 경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는 절대적 유일신의 체험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 바, 특별히 타자 인식에 있어 성격 변화가 야기되었다. 서구종교(그리스도교)와의 접변을 통해 일어난 종교적 관계구조 인식의 변화는 타자(종교적 타자뿐만 아니라 이념적 타자, 인종적 타자에 이르기까지)를 여울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다.

Ⅲ. 한국 개신교사의 맥락에서 본 정체성 문제

개항을 전후해서 본격화되기에 이른 서구문명의 유입은 한국사회에 지각변동을 불러 왔으며, 그러한 사회변동은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은 개항과 서구문명의 유입이 자발적 과정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큰대성' 수용은 서구 열강들과 일체의 제국주의 확장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큰대'는 '탈이 난 근대' 내지는 '왜곡된 근대'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개항으로 말미암은 한국사회의 지각변동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종교문화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종교문화의 서로 다른 두 에피스테메의 충돌이라는 문명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기존 질서를 지탱해 온 유교적 세계관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 질서의 위축과 반비례해서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의 영향력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확장된 데에는 서양의 물질문명과 서양의 종교(그리스도교)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관념이 개재되어 있었다. 발달된 문명의 이면에는 우월적인 정신체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즉 서양의 종교가 발달된 서양문명의 원천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개항 후반기에 이르러 근대성의 수용이 지상 과제로 부각되면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를 문명의 기호(a sign of civilization)'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 담론으

로 떠오르게 되었다. 근현대 한국종교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꼽히는 개신교의 빠른 확산의 이면에는 문명기호론적 종교 담론¹⁰⁾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근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는 근대 서구문명을 통로로 삼아서 한국사회에 대해 빠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한국 개신교는 교육·의료·사회사업 등 간접선교 전략을 통해서 스스로의 평판(publicity)을 제고시킨 후에, 직접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는 '간접선교' 우선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개신교의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¹¹⁾ 초기 한국 개신교의 간접선교는 기본적으로 문명선교(文明宣敎)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학교'와 '병원'으로 상징되는 개신교 문명선교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교육'과 '의료'는 초기 한국 개신교의 강력한 자기 확장 체계를 이루었으며, 한국인들에게는 개신교의 모던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구성하는 영역이었다. 개신교는 교육을 통한 계몽'과 치료를 통한 이적'을 통해 포교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¹²⁾

개신교의 성공은 한국의 종교지형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전개된 동양고전종교 전통들의 개혁운동, 즉 유교 개혁운동과 불교 개혁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동기는 개신교의 종교적 성격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20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유교 개혁운동과 불교 개혁운동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개신교를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¹³⁾ 20세기 초반의 유교 및 불교의 개혁운동은 종교문화의 차원에서 동아시아 모델이 현저하게 위축되었음과 함께, 서구 그리스도교(특히 개신교)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세계화' 모델이 설득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동아시아 세계가 지향한 '세계화'는 다른 아닌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세계화=서구화'의 추동력을 구성하는 것은 근대'에의 지향이었다.

19세기말 20세기초의 문명적 전환기에서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10)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51-54쪽.

11) 신광철, 〈개항기 한국 그리스도교의 포교전략-한국사회의 그리스도교 이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9호, 1998.9., 108-109쪽.

12) 이창익, 〈설교권력과 성령의 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계간 사회비평》 33호, 2002.8., 214쪽.

13) 20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종교개혁운동에 반영된 개신교 모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종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주제이다.

(paradigm shift)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종교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개신교는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로 상징되는 문명선교를 통해 종교가 지닌 문명적인 힘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힘의 발현은 당시 한국인들로부터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개신교의 이러한 힘과 성공은 영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전통으로 하여금 개신교를 모델로 삼은 개혁을 시도하게끔 만드는 동인으로까지 작용하였다. 동양-고전종교들은 서양-그리스도교를 모델 삼아 자기 개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고전종교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한 신종교 내지는 민족종교 영역 또한 서양-그리스도교의 일정한 영향 범위 안에 있었다. 근대 한국의 민족종교들은 동양-고전종교 영역의 '전통'과 서양-그리스도교 영역의 '큰대'를 접합해서 '큰대적 전통'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말 20세기초의 문명적 전환기에서 개신교는 근대문명의 침병으로서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정체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개신교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큰대의 모델'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 문명선교의 영향력이 놓여져 있었다. 계몽과 치유! 그것이 한 세기 전 개신교가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스스로 자임하였던 역할이었으며, 그러한 역할은 당시 한국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한 세기 뒤, 즉 20세기말 21세기초 한국사회에서의 개신교의 문명사적 위상은 상당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변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신교 비판 담론의 부상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¹⁴⁾ 이러한 한국종교 비판 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종교 비판론의 핵심에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의 한국종교 비판 특집에서, 장식만은 한국의 거의 모든 종교가 벌여온 개신교 따라가기' 운동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들은 지난 한 세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신교의 물량적 성장주의, 전통적 선교방식,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를 고스란히 답아가고 있다.¹⁵⁾

14) 한국종교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통권 12호)에 실린 특집 논문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장식만의 〈한국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 이진구의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김종찬의 〈불교계, 종단권력의 정치학〉, 조현범의 〈한국천주교회의의 빛과 그림자〉 등의 한국종교 비판 담론이 제기되었다.

15) 장식만, 〈한국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 218쪽.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판 담론이 다양한 시각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국 개신교는 개교회주의, 교회의 비대화, 교회 재정 문제, 목회자 세습 문제, 기복주의적 성향, 몰사회적 교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비판 담론에 직면해 있다. 필자 역시 기복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 개신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시도한 바 있다.¹⁶⁾ 필자가 그 글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교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였다. 필자는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무속에서의 무격(巫覡)에 비유하면서, 전형적인 목회자 중심주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교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지니는 폐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주체적 신앙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세기적 전환기에서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그리스도교, 특별히 개신교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는 첫 번째의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 세계화' 경향의 핵심적인 열쇠로 기능하였으며,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종교지형을 주도해 왔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개신교는 적어도 외형적 규모 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개신교는 세계 개신교 지형에서 교인 수와 대형교회 수에서 수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새로운 선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개신교는 대형화·세계화의 첨단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개신교가 교회내적 측면에서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거기에 걸맞은 질적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와 사회의 단절 현상이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회는 성역화(聖域化)되고 있다. 바야흐로 교회는 그들만의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만의 성역'의 길을 치닫는 한국개신교의 '대형화' 추세와, 좌표를 상실한 채 서구의 모델을 답습하는 세계화'의 흐름은 부메랑이 되어 한국교회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신교 따라가기'에 급급한 한국의 종교계는 그 존재의 당위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¹⁷⁾ 한국 종교계의 개신교 따라가기'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는 오늘의 정황은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내내 근대화(문명화)

16) 신광철, 〈(20세기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기복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350-360쪽.

17) 최준식,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의 여부 문제에 대하여〉, 《종교연구》 제18집, 1999년 가을호.

모델을 통해 한국의 종교계를 주도해 왔으나, 그러한 위상에 걸맞은 내용을 채우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개신교가 처한 이러한 문명적 정황은 전지구적(global)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 또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서구 종교(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세계화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서구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동양 종교의 보완적 가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개신교는 더 이상 한국 종교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전통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IV. 개신교 종교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한국 종교사와 개신교사의 맥락에서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 종교사의 맥락에서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로, 동양고전종교 수용을 통해 한국종교의 구조를 이룬 조화의 정신이다. 종교사적 맥락에서 볼 때, 조화와 원융의 정신은 한국인의 정체성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로, 서구 그리스도교(천주교와 개신교)의 수용을 계기로 이러한 한국종교의 구조에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절대적 유일신론은 한국종교의 구조를 이루어 온 조화의 공존의 이념에 수정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쟁과 갈등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정체성 및 종교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를 시사해 준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의 대화지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실시하는 한편, 그러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한 대화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신교사의 맥락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로, 한 세기 전(19세기말 20세기초), 개신교는 나람의 문명사적 책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으로 상징되는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를 통해 문명적 소임을 담당하였다. 한 세기 전의 문명적 전환기에 있어 개신교는 나람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그로부터 한 세기 뒤, 개신교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자기 영역의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세기 전, 개신교가 당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문명화의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개신교는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결여한 채 물량화·대형화·무분별한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교의 종교적 정체성 및 종교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숙제를 던져 준다.

개신교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한 천착을 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과제와 거기에 상응하는 개신교 교육의 방향성의 설정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a) 지역문화(풀뿌리 문화) 활성화와 (b) 시민민주주의(풀뿌리 민주주의) 및 평화 정착으로 제시하는 한편, 거기에 상응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방향을 (1)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교회'(지역문화-선교 교육)와 (2) 통일과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평화 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가지 주제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전제한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이다. 이에 덧붙여, (3) 교회 안에서의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대화교육

한국의 종교계가 다른 전통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 종교계는 겉으로는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화'의 경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전통의 우월성을 전제한 채, '열린 대화'보다는 '닫힌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다. 종교적 배타성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종교만이 참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종교적 배타성은 내집단(內集團)에 대한 충성심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외집단(外集團)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한국종교의 배타성은 단지 몇몇 소종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굵직한 제도종교들 역시 배타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개신교의 배타성은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 종교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는 타종교에 비하여 배타성이 두드러지게 강한 편이라고 한다.¹⁸⁾ 실제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개신교의 배타성을 심심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개신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서 타종교의 성물(聖物)이나 상징물을 훼손하곤 한다. 개신교인들에 의한 훼손(毀佛), 즉 불상(佛像) 및 불화(佛畵) 훼손 사례가 심심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일부 개신교인들의 배타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부 개신교인들은 혹은 광장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포교 활동

18) 이원규, <한국사회와 종교 갈등 : 한국 사회와 종교 갈등: 개신교 배타주의 성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학회 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집, 1991.

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포교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그들의 천국'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곤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전투적인 포교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쳐 놓은 울타리'의 닫힌' 체계에 환멸을 느끼곤 한다. 개신교 종교교육 영역에서 대화교육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개신교는 대화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 나가야 한다.

대화교육에 있어 대화의 전통에 대한 성찰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종교간 대화의 흐름은 현대 한국개신교 토착화신학 내지는 대화신학 작업의 배경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화운동 및 대화신학을 통한 종교간 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전체 한국 개신교계의 흐름을 대변해주지는 못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학적 스펙트럼에 있어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는 감리교단이 대표적인 대화신학자 변선환을 정죄하였던 사실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선환 정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한국 개신교의 대화지수 내지는 평화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토착화신학 및 대화신학의 폭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현대 한국개신교의 평화지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 및 동양의 전통에 대해 깊은 식견을 지닌 신학자층이 점점 더 얇어지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돌이켜보건대, 한국개신교 토착화신학 제1세대(최병헌)는 동양고전종교 전체, 즉 유불선 3교를 아우르는 작업을 하였고, 제2세대(윤성범, 유동식, 변선환)는 유교, 무속, 불교 가운데 하나의 전통과의 만남을 모색하였으며, 제3세대는 주요 종교전통과의 대화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근대 한국 신종교와의 대화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토착화신학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신학작업의 동양적·한국적 기반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신학계는 신학적 성찰의 심화 못지 않게 한국 및 동양의 전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도, 선교적 상황의 진전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대화교육의 첫걸음은 이웃종교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2. 지역문화-선교 교육

오늘날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여할 선교전략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는 기본

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주민이 모여 구성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주민들의 신앙의 장(場)이요,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생활의 장(場)인 것이다. 최근 각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건축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회 공간의 개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배 및 실무 공간을 지하에 배치하는 대신, 지상의 공간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는지, 교회 공간 안이나 교회에 부속된 별도의 건물을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 혹은 사랑방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선교 개념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 한국교회는 보다 분명한 지역사회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선교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와 자원봉사 활동'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교회 내 시설을 활용한 선교 전략, ② 사회 교육 관련 선교 전략, ③ 특수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선교 전략 등으로 짜여질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교회 건물은 일주일 가운데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활용되는 실정이다. 역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임 장소는 그다지 마땅한 편이 아니다. 여기에 교회 건물은 교육적 활용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교회 건물은 탁아소 및 어린이집, 공부방, 도서관, 놀이터 및 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개교회가 각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공신력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교회의 지역사회 복지에의 참여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회는 사회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상담실 운영, 취미교실 및 특별강좌, 환경운동 프로그램, 노인학교, 실직자 및 노숙자 구제 프로그램, 농어촌과의 결연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재교육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각 교회는 '주부대학', '생로대학'(노인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여성 및 노년층의 영적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또한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돌보는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인들을 자원봉사자로 견인함으로써 '더불어 삶' 내지는 '나누는 삶'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사회 선교 개발부'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일정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 규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 모색을 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지역사회 선교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들을 자원봉사자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평화 교육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평화를 꿈꾸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의 실현을 회고하고 있다.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교육의 대전제로는 (1) 생명을 살리는 길, (2) 더불어 사는 길 등을 들 수 있다. 평화교육은 살림 교육인 동시에, 함께 삶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에 생명(환경)교육과 통일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평화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 한국 개신교계에서 자성(自省)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2000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세기의 전망을 담아 발표한 <21세기 한국 기독교 선언>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선언문은 성장 제일주의와 물량주의, 비민주적인 교회운영 체계, 교단 정치의 파행성, 교회내의 불평등, 근본주의, 기복주의, 내세주의 등 한국 개신교계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한편, 그러한 문제점들을 생태적 사고 내지는 생명 중심의 사고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개신교는 시대적 전환기마다 역사적 과제를 인식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모색해 온 전통을 간직해 왔다. 교회연합 또는 교회일치의 정신을 주창한 <에큐메니컬 운동 선언>(1959년)과 평화와 통일의 정신 아래 교회와 민족의 접점을 모색한 <희년 선언문>(1988년) 등을 그러한 전통의 산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개신교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전통에 담겨진 의지가 신앙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의지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대중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한국개신교의 의지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자적 의미에서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개신교 종교교육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구체화를 통해, 개개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환경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지침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한다.

4. 교회학교교육 및 기독교계 대학의 방향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이 우리 사회에 끼친 공헌이 적지 않았다. 초기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영육(靈肉) 간에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초기의 교회학교 교육은 성경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도, 근대문명의 수용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또한 전수하였다. 그러한 지식의 전수는 이른바 계몽교육'의 흐름 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초기의 교회학교 교육이 단순히 복음 전파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계몽을 병행하였던 것은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초기의 교회학교 교육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육은 복음 전파라는 맥락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교회학교 교육이 단순한 성경 공부'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육은 현대적 정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한 채, 과거의 흐름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학교는 아이들의 현재적 고민과 그러한 고민을 돌파할 시각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교회학교의 역할과 비중은 점점 왜소해지고 있다.

교회학교의 현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견하게 만드는 바로미터이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10년 또는 20년 뒤에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회학교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미래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이 사실상 담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전제할 때, 미래의 한국교회의 질적 수준 또한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다시금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초기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의 정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 교육은 단순히 복음전파'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교회학교 교육은 미래 시대의 주체가 될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그러한 고민을 돌파할 시각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계몽의 빛'을 던져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의 교육 선교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대학이다. 오늘날에도 상당한 숫자의 대학이 기독교계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 대학의 양적인 비중과는 달리, 각 대학이 기독교의 이념과 정신을 성공적으로 고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기독교계 대학들의 상당수가 설립 초기의 기독교적 이념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대학이 종합화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짐에 비례해서 세속적인 세계관의 유입이 불가피했던 점이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변화하는 시대상과 사회상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교육 이념을 재정립하는 데에 노력을 게을리 하였던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이 자신의 교육 이념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이 내걸고 있는 교육 방침이나 교육 목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양 교육을 통해서도 그 과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계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함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채플(예배)과 기독교 관련 교양 교과목의 운영이 그것이다. 채플은 제의(祭儀)적 차원의 체험을 통해 기독교적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계 대학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채플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상당한 비율의 비기독교인들이 각 대학의 구성원이 되는 현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 대학의 채플 운영은 비기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선교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직접적인 포교보다는 간접적인 문화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공감을 유도해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관련 교양과목의 운영 또한 시대상에 부응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여전히 고답적인 수준의 기독교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학과나 기독교 학과의 커리큘럼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강좌는 수강생들이 기독교인임을 전제하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까지 하다. 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 역시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보다는 기독교 문화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기독교 문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를 한국개신교의 자리에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종교적 정체성의 구조 및 종교의 문명사적 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종교사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한국종교의 조화 정신이었다. 조화와 원융의 정신은 한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을 관통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조화와 원융의 정신은 우리 민족이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양고전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동기로서 작용하였다. 이른바 3교정족적 세계관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조화 정신은 근대에 들어서 서양종교(그리스도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국종교사에서는 새로이 종교간 경쟁과 갈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개신교 종교교육의 한 가지 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다시금 종교들의 조화를 지향하는 대화교육이 그것이다.

한국개신교사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19세기말 20세기초 및 20세기말 21세기초에서의 개신교의 문명사적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앞 시기에서 개신교는 당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모델로 등장했으며, 그러한 전환점에 상응하는 나름의 문명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후자의 시기에 와서, 개신교는 수적인 규모에 걸맞은 문명적 역할을 담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의 시대적 반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반성을 통해서,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지역문화-선교 교육과 평화교육이 그것이다.

이상, 대화교육, 지역문화-선교 교육, 평화교육 등이 교회와 사회의 관계구조 속에서 제기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이다. 여기에 덧붙여 교회 내부적 과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교회학교와 기독교대학을 중심으로 교회내적 맥락에서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주제들이 개신교 종교교육 전체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시적인 종교문화사 내지는 문명사의 맥락에서 커다란 문제를 제시해 보았을 뿐이다. 이 글에서 제시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언급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언급하는 선에서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종찬, 〈불교계, 종단권력의 정치학〉,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 신광철, 〈(20세기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기복주의〉,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 신광철, 〈개항기 한국 그리스도교의 포교전략-한국사회의 그리스도교 이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9호, 1998.9.
- 신광철, 〈이능화의 韓國神敎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11집, 1992.
- 신광철, 《천주교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
- 윤경로, 〈신구교 관계의 역사적 고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1984년 2월호.
- 윤이흠,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장병길교수 은퇴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한국종교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85.
- 이진구,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
- 이창익, 〈설교권력과 성령의 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계간 사회비평》 33호, 2002.8.
- 장석만, 〈한국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
-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조현범, 〈한국천주교회의 빛과 그림자〉,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
- 최준식,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의 여부 문제에 대하여〉, 《종교연구》 제18집, 1999년 가을호.
- 이원규, 〈한국사회와 종교 갈등 : 한국 사회와 종교 갈등: 개신교 배타주의 성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학회 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집, 1991.

원고접수: 5월 19일 1차심사: 5월 26일 게재승인일: 5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종교학(한국종교) / 소속: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 종교학의 문화비평적 기능, 문화콘텐츠학
- ③ 주요논저: 《천주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한국종교문화사상의》,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 ④ E-mail: iskc@hansin.ac.kr
-

Korean Identity & the Religious Education of Protestantism

Sin, Kwang-chul

(Hansin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survey on the theme, "the issue of Korean identity and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view of Korean Protestantis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ssue of Korean identity in the context of religious history. In this point, I have noticed the spirit of harmony. This has been a basis of the religious identity of Korean people.

And I also pay attention to a new situation which appeared simultaneously with the acceptance of modern western religion(Christianity). It can be said that a new period of competition and conflict among religions in the religious history of Korea. Through this reflective self-examination, it is possible to suggest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of Korean Protestantism. It is to educate how to converse each other for the harmony of relig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Protestant history, I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function of Protestantism as a member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Current Protestant Church seems to fail in its duty. Reflective self-examination on this reality enables us to propose 'mission-education for local cultures' and 'peace-education' as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of Protestantism.

Key Words : identity, the spirit of harmony, reflective self-examination, mission-education for local cultures, peace-education.